



자 조 금 소 식



양돈자조금 대의원, 한·미 FTA 반대결의 2006년도 양돈자조금사업 결산(안) 승인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이 지난 3월 28일 대전 샤프도그 레이호텔에서 개최된 양돈자조금 정기 대의원회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한·미 FTA 반대 결의를 통해 양돈산업을 말살하는 FTA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FTA로 인한 국내 양돈산업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총 세입 103억5천5백만원(예산 대비 97.3%), 세출 96억6백만원(90.3%) 등 2006년도 양돈자조금사업 결산(안)을 승인하고, 대한양돈협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연직 관리위원직을 승계한 김동환 관리위원의 후임으로 양돈협회와 농협 등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한 김건호 대의원(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양돈자조금 거출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종돈과 육가공업계 등 양돈업계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초로 양돈업계가 의무자조금을 시행, 오는 10월 중 새로 출범할 제2기 대의원회 역시 최초가 될 것이라며, 그간 양돈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1기 대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충남

진재현 대의원이 자조금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10월 17일 예정

제1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을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가 오는 10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4월 4일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T/F팀(농협, 양돈협회, 자조금 사무국 각 2명)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T/F팀은 선거권자 및 선출구 지정, 대의원수 배분,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사원 구성, 선거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양돈협회와 농협 등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는 농림부에 전국 가축 사육두수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에서 최근 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해 관내 돼지 사육두수를 조사하게 되며,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면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별 농가수(50%)와 사육두수(50%) 등을 고려해 대의원총수에서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게 된다. 한편 올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양돈의 경우 대의원총수가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위원장은 "이번 제2기 대의원회 구성은 지난 4년 동안 양돈자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재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국 양돈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자조금 납부주체인 양돈농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자조금 대의원수 150명으로 조정

양돈자조금 대의원이 150명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양돈자조금 대의원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28일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변경되게 된 것이다.

특히 축산업자수와 사육두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양돈협회 의견 등을 반영, 양돈자조금 대의원수는 15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 법률 개정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별도의 축산통계 조사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 자료를 보고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가축사육두수 조사의무를 폐지하여 이를 보고의무로 조정해 별도의 조사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도축장 등 수납기관의 거출금 징수수수를 현행 거출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내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입기한도 현행 매달 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02)500-1995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강화'

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납입을 향상을 위해 지역별로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 각 도협의회장은 지역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양돈자조금 사업내역 및 실적 등을 알려 자조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축장을 방문해 도축장 관계자들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담당공무원을 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제3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11일 제주 양돈농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명 : 제3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일시 : 2007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제주양돈농협

※제주 도새기 축제가 오는 5월 12일(토)~13일(일)

이틀간 제주 경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이에 맞춰 제주 양돈자조금 대의원협의회를 5월 12일(토) 오전 11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TV·라디오 광고 최종 시사회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3월 27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2007년도 TV·라디오광고 최종 시사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방영될 광고에 대한 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이번 시사회에는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부와 광고홍보학과 학생 등도 참석해 호평을 얻었다. **양돈**